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이소영
충북연구원

e-mail:sylee@cri.re.kr

A Study on the Action Plan for Carbon Neutrality in 2050

SoYoung LEE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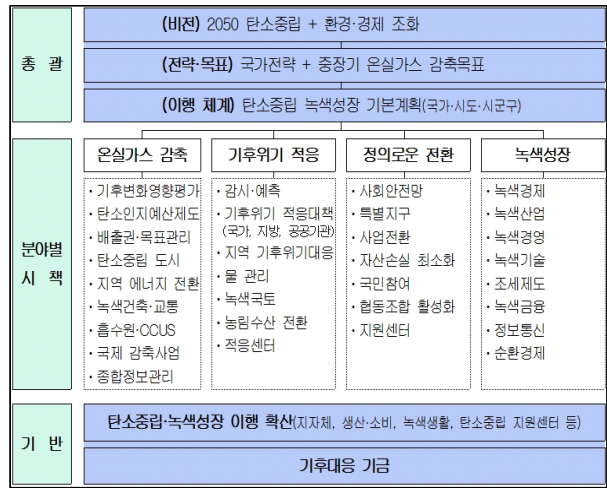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회는 파리협정을 채택하고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기후안전사회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 고용,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경제적 목표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향후 추진해야 할 탄소중립 전략과 실천계획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1. 서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글로벌 국가들의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우리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계획하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이하 LEDS)을 수립·확정하여 UN에 제출함으로써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다.

'20년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서는 지역중심 탄소중립의 실현을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21년 250여 곳 이상의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국가계획과 부합하여 목표를 세워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22년 3월 25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기초단위 지자체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고, 이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실천계획과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그림 1]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체계 (국무조정실,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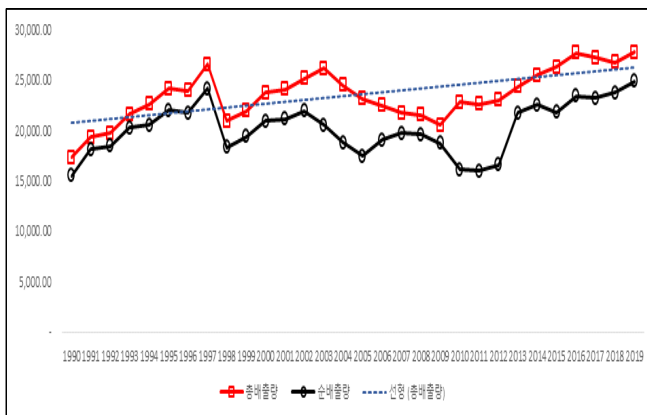
2.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동향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이후, 장기적 목표로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어느 수준 정도로 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EU 국가들은 1990대 중반부터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 목표를 주장해 왔으며,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차 종합평가보고서'에 지구온도 상승 2℃ 목표가 포함되어 2009

년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채택되었다. 이후 2015년 파리의정서에서 2℃ 보다 하향 온도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목표가 수립되었으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50년까지 최소 75% 이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하였다. 해당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충북 탄소중립 추진현황 및 전략

충북지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990 ~ 2019년 기간 연평균증가율(CAGR) 1.6% 증가하였으며,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분야를 반영한 순배출량 역시 연평균증가율 1.6%로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충청북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2019)

충청북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50 충북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시대와 신·재생에너지 산업혁신 거점지역 달성하고자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의 대표적 탄소 다배출 사업인 시멘트산업, 반도체산업, 일반 주민의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교육과 시민실천계획등에 다양한 탄소중립 추진현황을 수립하고 향후 전략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1] 국무조정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체계”.2021
- [2] 충청북도.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계획”,2022